

저자 (Authors)	최진구 Choi Jin-ku
출처 (Source)	신라문화 42 , 2013.8, 243-268 (26 page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42 , 2013.8, 243-268 (26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69283
APA Style	최진구 (2013). 신라 五岳과 불교의 산신신앙 연구. 신라문화, 42, 243-26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1/04 11:4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五岳과 불교의 산신신앙 연구

최진구*

<目 次>

I. 서 언	III. 산신신앙의 불교습합
II. 신라 五岳의 성립과 신라인의 산악숭배	1. 갈등, 그리고 대립
1. 신라 오악의 성립	2. 습합, 그리고 상생
2. 신라인의 산악숭배와 산신	IV. 결 론

[국문초록] 산은 고대로부터 경외의 대상이었으며 생활의 터전이기도 하였다. 이는 곧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간신앙 가운데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산악숭배의 형태로 나타나는 산신신앙이 되었다.

단군이 아사달로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민족의 산신신앙은 그 유래가 단군조선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각각 산신에게 제사하는 제도를 국법으로 행하고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신라가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다. 신라는 삼국통일 전부터 경주를 중심으로 오악이 성립되어 있었으며, 삼국통일 후 이 오악은 국토의 확장에 따라 확대되었다. 이렇게 확대된 삼산·오악의 제사 체계에 따라 왕이 친히 전국 명산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따라서 산악숭배에서 시원한 산신신앙은 우리 민족의 토착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산에 대한 신앙은 산신에게 제사하는 산신제가 되었고 국가 제의로 발전하면서 산을 섬기는 것은 나라를 지키면서 왕권을 보호하는 것과, 천재지변을 물리치는 목적으로도 활용되었다.

이렇게 한반도 고대인들의 생활속에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던 산신신앙이 외래종교인 불교가 전래되면서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된다. 고구려와 백제는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큰 저항없이 왕의 권위에 의해 순조롭게 수용되었지만, 신라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 내부적 갈등을 겪어야 했다. 그 이유는 신라사회에 뿌리내린 토착신앙이 상당히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차돈의 순교가 토착신앙과 불교와의 갈등을 대표하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불교 교리는 타 종교에 비해 지극히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다원주의적 포용성을

*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울산문화방송 편성제작국 국장.

지니고 있고 그러한 특성이 불교와 관련이 없던 토착신앙인 산신과 융합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불교의 성지신앙은 한국 특유의 산신신앙 및 산악숭배사상과 맞물려 청정과 광명 숭앙을 내용으로 하는 불교 신앙과 융합되었다. 산악에 대한 이러한 관념이 산신신앙을 쉽게 사찰에 끌어들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불교 내에서 산신의 지위는 가람의 수호신 역할의 기능과 함께 청정도량에서의 수행 생활의 평온을 기원하는 외호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문초록] Mountains had been a target of awe and ground of living by ancient people in the Korean peninsula. It soon became a mountain god faith taking the form of a mountain worship deeply rooted as one of our nation's unique folk beliefs.

Judging from the record of Samgukyusa that wrote Dangun transformed himself as the mountain god after settling in Asadal, the concept of mountain spirit of our nation stemmed from Dangun Joseon Dynasty.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of Goguryeo, Silla, and Baekje, it was held by law to have memorial service to each mountain spirit and Silla was the one that had the most systematic and organized system. Before Silla unified the Three Kingdoms, it had included Five Greatmountains centering around Kyung-Ju. Accordingly they had developed with the expansion of the country. Since the establishment of its memorial service to these extended three mountains and Five Greatmountains, the king himself had shown his worship at the mountains in the country. Our nation's faith in the mountain stemming from the worship of the mountain has become an indigenous religion and has continued until today. Mountain Spirit is the most generalized and oldest among the other nature spirituals that Korean people believe. Faith in the mountain had become a sacrifice to the mountain and developed into a national service in which serving to mountains was considered as protecting the throne, while keeping the country and was also used for the purpose of defeating the natural disasters. This faith that settled in the lives of the ancients faced a change with the introduction of foreign religion, Buddhism. Unlike Goguryeo and Baekje that accepted Buddhism smoothly without resistance under the authority of the king, Silla had to suffer from internal conflict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blame was the deep-rooted indigenous faith in Silla society. Yichadon's martyrdom was of a representative event that showed a confliction between indigenous beliefs and Buddhism. But as the Buddhist doctrine was extremely open and based on tolerable and latitudinarian pluralism, such characteristics had helped combining with mountain spirits, serving as indigenous religion that had little relevance to Buddhism. In addition, religious belief of the Holy Land of Buddhism had been a fusion of Buddhism faith with values of uncontaminated and bright future coupled with Korean distinctive mountain spirit, faith, and mountain worship. These notions about the mountain contributed to easily putting the mountain spirit faith into temples. The status of mountain god in Korean Buddhism today has been accepted as the god to whom to pray for tranquility of clean-minded

asceticism life with the role of the patron saint of a Buddhist temple

[주제어] 산신(Mountain spirit), 오악(5 Mountains), 신라(Silla), 불교(Buddhism), 토착신앙(Indigenous beliefs), 산악숭배(Mountain worship)

I. 서 언

한반도에는 불교가 전래되기 훨씬 오래 전부터 토착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토착신앙이라고 하면 무속신앙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천신신앙과 산신신앙 등이 우리의 대표적 신앙이었다. 토착신앙 또는 민간신앙¹⁾은 한반도 고대인들의 대표적 신앙이었으며 천신신앙은 고대국가의 지배이념이기도 하였다. 또한 산악이 많은 지리적인 특성상 산에 의존해 의식주를 주로 해결해 왔던 고대인들에게 산은 신성한 숭배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는 곧 산 자체가 신격화 되었고 신앙으로 전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민족문화의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토착신앙이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 세계적 보편성과 함께 한국적인 특수성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전을 중심으로 토착신앙으로서의 산신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이들 기록 중 일부는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따라서 이 기록만으로 토착신앙의 성격이나 유형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정의를 내리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전에 나타나는 신화나 제의 등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방식, 사회체계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토착신앙의 형태를 유추해 보는데 있어 소중한 자료이다.

1) 민간신앙이라는 말은 영어 folk-religion 또는 folk-belief(독일어 volksreligion 또는 volksglaube)의 譯語이다. 이것이 일본어로 옮겨져 통용되고 우리나라에 유입된 배경과 과정을 아직 정확히 조사해 있지는 못하나, 이 용어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이고도 대규모로 사용된 것은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조선 민간신앙 조사와 관련해서였다. 저들은 한국인의 문화와 사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민간신앙의 조사에 착수하였던 것인데 그 조사결과 <朝鮮의 類似宗教>(1933) <部落祭>(1937) <釋尊·祈雨·安宅>(1938) 등 일련의 민간신앙 자료 총서로 출판되었다. 한국민속에서의 민간신앙이라는 개념은 저들의 개념 및 범주이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사용되어 온 것이다.(조흥윤, 『무와 민족문화』, 민족문화사, 1994, p. 17)

토착신앙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악숭배사상에서 비롯된 산신신앙이라고 하겠다. 이 산신신앙은 단군설화 이후, 고대 이래로 한민족의 생활속에 깊이 뿌리 내린 채 수 천년을 함께해 온 토착신앙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민족의 산악숭배사상이 비교적 체계화 되어 있었고 조직적으로 제의가 행해졌던 신라를 중심으로 산신신앙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삼산·오악으로 대표되는 신라인의 산신신앙이 어떤 과정을 거쳐 불교와 습합하였는지도 알아 볼 것이다. 물론 불교 수용 이전까지 토착신앙이 신라인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으나 이 토착신앙만으로는 사회·정치 발전을 견인해 가기에는 사상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뛰어난 고등 종교인 불교를 왕권에 의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 집권화를 통한 왕권 강화를 추구하던 왕실은 토착세력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교를 공인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불교가 공인되었다고 하여 산신신앙이 소멸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불교와 습합하여 그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하여 계승되고 있다. 따라서 산신신앙의 원형과 그 기능의 변화과정, 신라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대립, 그리고 불교와 융화되어 독자적인 신앙체계를 갖추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산신신앙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신라 五岳의 성립과 신라인의 산악숭배

1. 신라 오악의 성립

한반도의 고대인들은 전국 명산에 혼을 부여하고 산신이라는 자연숭배의 대상을 창조해 냈다. 따라서 명산 숭배의 전통은 한반도의 문화와 그 역사를 같이 해왔다.

기나긴 한국의 역사를 통해 산신은 각 마을과 도시의 주 수호신이었을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보호자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고대로부터 장대한 산신단에서 대대적인 제사를 올리는 것은 한국의 왕에게 있어서 합법적인 권력의 상징이었다.²⁾ 따라서 한반도에서는 이미 고대국가 시절부터 산천에 제사지내는 행사가 국가적으로 진행되었다. 명산대천에 제사하였다는 기록은 『삼국사기』 제사지에 잘 나타나 있다. 신라인들은 이 제사를 대사·중사·소사로 구분하였으며 오악은 중사에 해

2) David A. Mason, 신동욱 역, 『산신』, 한림출판사, 2003, p. 18.

당된다.

삼산 오악 이하 명산대천을 대·중·소사로 나누어 삼는다. 대사 삼산의 1은 나력 습비부, 2는 골화 절야화군, 3은 혈례 대성군이다. 중사 5악은 동쪽으로 토함산 대성군, 남쪽으로 지리산 청주, 서쪽으로 계룡산 웅천주, 북쪽으로 태백산 나사군, 가운데에는 부악, 공산이라 하고 압독군이다. 4진 동쪽으로 온말근 아곡정이며 남쪽으로 해치야리, 실제라고 하며 추화군이다. 서쪽으로 가야갑악 마시산군, 북쪽으로 웅곡악, 비열홀군이다. 4해 동쪽으로 아등변, 근오형변이라고 하며 퇴화군이다. 남쪽으로 형변 거칠산군, 서쪽으로 미릉변 시산군, 북쪽으로 비례산 실직군이다. 4독 동쪽으로 토지하이며 계포라하고 퇴화군이다. 남쪽으로 황산하 삼량주, 서쪽으로 웅천하 웅천주, 북쪽으로 한산하 한산주이다. 속리악 삼년산군 추심 대가야군, 상조음거서 서림군, 오서악 결기군, 북형산성 대성군, 청해진 조음도이다.³⁾

이 기록에 따르면 대사는 삼산이며, 중사에는 오악과 함께 사진·사해·사독 외에 6곳의 山城·鎮이 포함되어 있고, 소사에는 24곳의 산이 해당된다.

오악 가운데 먼저 동쪽의 토함산은 대성군으로 되어 있어 지금의 청도군에 위치해야 하지만 이곳에는 토함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新增東國輿地勝覽』경주부 산천조에 ‘동쪽 30리에 있는 토함산이 신라 때의 동악으로 중사의 대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삼국유사』탈해왕조에 탈해왕이 문무왕의 꿈에 나타나 疏川丘에 있는 자신의 뼈를 塑像으로 만들어 토함산에 묻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게 하였고 이를 동악신으로 모셨다는 기록이 있다.⁴⁾ 따라서 탈해왕은 사후에 토함산신으로 추앙되었고 토함산은 신라인에게 신령스러운 산으로 여겨져 숭배의 대상이

3) 『三國史記』 권32, 雜誌 第1 祭祀條, 三山五岳已下名山大川分爲大中小祀 大祀 三山 一 奈歷 習比部 二 骨火 切也火郡 三 穴禮 大城郡. 中祀五岳東 吐含山 大城郡 南 地理山 菁州 西 雞龍山 熊川州 北 太伯山 奈已郡 中 父岳 一云 公山 押督郡. 四鎮東 溫沫 牙谷 停 南 海耻也里 一云 悉帝 推大郡 西 加耶岬岳 馬尸山郡 北 熊谷岳 比烈忽郡. 四海東 阿等邊 一云 斤烏兒邊 退火郡 南 兄邊 居柒山郡 西 未陵邊 屎山郡 北 非禮山 悉直郡. 四瀆東 吐只河 一云 槩浦 退火郡 南 黃山河 敵良州 西 熊川河 熊川州 北 漠山河 漠山州. 俗離岳 三年山郡 推心 火加耶郡 上助音居西 西林郡 烏西岳 結已郡 北兄山城 大城郡 清海鎮 助音島.

4) 『三國遺事』第四 脫解王, 在位二十三年 建初四年己卯崩 葬疏川丘中 後有神詔 慎埋葬我骨 其觸體周三尺二寸 身骨長九尺七寸 齒凝如一 骨節皆連瑠 所謂天下無敵力士之骨 碎爲塑像 安闕內 神又報云 我骨置於東岳 故令安之(一云 崩後二十七世文虎王代 調露二年庚辰三月十五日辛酉夜 見夢於太宗 有老人貌甚威猛 曰我是解脫也 拔我骨於疏川丘 塑像安於土含山 王從其言 故至今國祀不絕 卽東岳神也云)

되었으며 오악의 성립과 함께 동악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석탈해의 설화는 요컨대 동해안지대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던 석씨부족이 경주 평야로 진출하는 과정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일 탈해가 토함산에서 성년식을 가지고 출세의 첫발을 내딛었고 그 때문에 그의 뼈가 토함산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해석에 따라 토함산은 석씨세력의 상징적 산악임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다. 이같이 석씨세력의 상징이었던 토함산은 신라에서 신성시되기에 이르렀다.⁵⁾

다음으로 오악 가운데 남악은 지리산이다. 지리산이 신라 오악의 하나인 남악으로 편입된 것은 대체적으로 삼산·오악의 체계가 성립된 8세기, 37대 선덕왕 무렵이었다고 추정된다. 원래 지리산은 백제의 영역에 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인이 지리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삼국통일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신라인이 지리산에 관심을 가지고 남악으로 숭앙하게 된 것은 신라인 자신의 산악에 대한 신심에서 인지, 그렇지 않으면 백제인들에 의하여 영산으로 숭배된 것을 오악체계에 흡수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다만 백제인의 원시신앙체계속에 산악숭배의 요소가 전무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백제인에 의하여 숭앙의 대상이 되었던 영산 지리산이 오악체계가 성립할 때, 남악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⁶⁾

다음으로 서악에 해당하는 계룡산은 웅천주, 지금의 공주이다. 계룡산 역시 백제지역에 있던 산인데 신라 오악 가운데 서악에 배치된 것은 남악 지리산과 유사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백제인들에게 신령시되던 계룡산이 오악체계가 성립되면서 서악으로 편입되었을 것이다.

5) 김열규, 「脫解傳承考」, 『金載元紀念論叢』, 1969, pp. 493~494 참조.

오악에서의 동쪽 대성군 토함산은 현재의 경주 동쪽 토함산이라는데 대하여 이설이 없다. 그러나 삼산의 대성군 혈례에 대하여는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어 있어 정확한 지명은 확인할 수 없다. 먼저 이병수의 청도 부산(鼻山)설이다. 이는 『삼국사기』의 「祭祀條」에 보이는 대성군을 근거로 하는 것 같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지금의 청도에 대성군을 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鼻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김상기의 월성군 단석산설이 있다. 『승람』과 『동부잡지』의 기록과 구비전설, 그리고 미륵신앙을 결부시켜 혈례를 단석산으로 고증하고 있다. 그는 혈례를 중악으로 보는 것은 통일 이전의 명칭으로서 경주 낭산과 영천 골화의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승람에 보이는 단석산(월출산)이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혈례라 보고 있다. 또한 단석산이 미륵신앙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홍순영, 「신라 삼산오악에 대하여」, 『신라문화제 학술발표회 논문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3, pp40~42.. 참조)

6) 홍순영, 「신라 삼산·오악에 대하여」, 『신라문화제 학술발표회논문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3, pp. 44~45. 참조.

계룡산이 물론 신라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오악 중의 서악에 해당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라의 서쪽인 백제 땅에는 이미 『택리지』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중국에까지 그 이름이 알려진 여러 산들이 있다. 그러나 『翰苑』의 저자에 의하면 계룡산이 그들 중에서 가장 출중한 존재였다. 이러한 관계로 웅천에 있는 계룡산이 오악에 들게 되었다고 생각된다.⁷⁾

오악 중 북악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전하고 있다.

- 1) 겨울 10월에 북쪽으로 순행하고서 태백산에 친히 제사지냈다.(逸聖 尼師今)
- 2) 3월에 牛頭州에 이르러 태백산에 망제를 지냈다.(基臨 尼師今).⁸⁾

이 기록으로 보아 왕이 친히 태백산에서 제사지내는 것은 항상 있어 왔던 역사적 사실이었다. 다만 신라의 영토가 북으로 죽령과 조령이 있는 소백산맥까지 확장된 연대는 내물마립간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없기에 그 이후부터 태백산에 제사를 지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신라에서는 통일이전부터 태백산을 영산으로 숭앙하였다고 짐작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奈已郡, 즉 지금의 영주에 있는 태백산이 그것이다(卷32, 雜誌 1, 祭祀條). 그러나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태백산은 영주가 아니고(卷25, 榮州郡 山川條), 삼척군도호부 산천조에 ‘在府西 120里 新羅時 爲北岳 載中祀’(卷44)라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신라시대 중사의 대상인 북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 신라가 경북 일대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백산맥의 존재가 국방상의 의미에서 주목받게 되었을 것임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과정에서 태백산은 국가를 수호하는 신성한 산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삼국사기』 제사지에 중악인 부악은 압록군, 즉 지금의 경산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新增東國輿地勝覽』대구도호부 산천조에는 ‘公山 或稱八公山 在解顔縣 北十七里 新羅時 稱父岳 擬中岳 爲中祀’(권26)라고 기록되어 있어 지금의 대구근교에 있는 팔공산이 신라시대 당시의 중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삼국시대부터 신라의 영토였으며 백제, 가야와의 관계로 미루어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오악의 산들은 신라가 주변

7) 이기백, 「신라오악의 성립과 그 의의」, 『진단학보』, 진단학회, 1972, pp. 14~15

8) 1 『三國史記』 卷第一 新羅本紀 第一 逸聖 尼師今 冬十月北巡親祀 大白山

2 『三國史記』 卷第二 新羅本紀 第二 基臨 尼師今 三月至 牛頭州 望祭 太白山 樂浪 帶方 兩國歸服

9) 홍순영, 앞의 글, 1983, p. 46.

국가들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편입된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라 영토의 사방과 중앙을 상징함으로써 국토방위의 지리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위에서 사료를 통해 살펴 본 것처럼 오악의 성립이 완성된 시기로는 문무왕대가 가장 유력한 시기로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문무왕 8년(668)에 고구려를 멸하였고 15년에 당군을 격파하였으며 이듬해 안동도호부를 평양에서 요동으로 옮기게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의상이 태백산에 부석사를 창건하여 화엄종을 창종하였는데 화엄종 10찰이 모두 오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탈해왕을 동악 토함산에 모신 것도 문무왕 20년의 일이다. 따라서 오악은 신라의 통일 직후, 대체로 문무왕 말년, 또는 신문왕대에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료에 의하면 신라 오악은 삼국통일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헌강왕이 포석정에 갔을 때 남산신이 나타나 춤을 추었고 금강령에 갔을 때는 북악신이 춤을 추었다’(『三國遺事』卷2, 紀異 處容郎 望海寺條)거나 ‘김유신이 17세 때 고구려, 백제가 침범하자 평정할 뜻을 세우고 중악 석굴에 들어가 하늘에 맹세하였다’(『三國史記』卷41, 金庾信傳 上)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경주를 중심으로 북악·서악·남악·중악 등의 이름이 나타나며, 동악인 토함산을 포함하면 오악이 된다. 따라서 이미 신라에는 통일 전에 오악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경주 근교에 오악이 먼저 존재하였는데 신라가 통일의 대업을 이룬 후 오악도 국토의 사방에 있는 산악들로 확대되었다고 하겠다.¹⁰⁾

이처럼 신라인들은 삼산·오악을 중심으로 산악숭배사상에 의하여 산천에 제사를 지내 왔다. 물론 삼국시대에 고구려와 신라가 각기 산천에 제사하는 제도를 국법으로 정하기는 했으나, 가장 조직적으로 체계화된 산천제외는 신라에서 볼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삼산은 대사, 오악은 중사로, 군소산악이 소사의 제외에 의하여 제사되었다는 것이 그 例證이다. 이 제외는 신라 37대 선덕왕 때 제정되었으나, 신라인의 산악숭배는 그것에 앞서 민간에 전해 내려 온 고유한 산신 신앙에 그 사상적 연원이 있다. 신라의 산악숭배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하여 고대인의 신앙체계에 있어서 그 비중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외가 체계화되었을 뿐 아니라 전국의 명산을 신성시하여 국가대사를 의존하는 성지로 삼았으며 신령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10) 이기백, 앞의 글, 1972, pp. 15~16. 참조.

11) 홍순영, 앞의 글, 1983, pp. 55~56. 참조.

신라 오악은 이미 삼국통일 이전부터 경주 근교에 존재하였다는 것이 각종 사료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신라가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후 오악도 영토의 확장과 더불어 한반도 각지로 확대되었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삼국통일 이후의 오악에

2. 신라인의 산악숭배와 산신

『후한서』동이전에 ‘그 풍속은 산천을 중히 여기고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낸다’¹²⁾고 하였다. 또 『삼국유사』고조선(왕검조선)편에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와 이곳을 신시라 하였으며 웅녀와 혼인하여 단군왕검을 낳았다. 단군왕검은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였고 이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겨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 산신이 되었으니 나이 1908세였다’¹³⁾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건국신화에서 시조가 하늘의 자손이며 산을 신령시하여 산천에 대한 제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악숭배에서 시작된 산신신앙은 한민족의 토착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단군신화에서 환웅은 산을 통해 하늘에서 하강하고 있으며 이를 신시라 하였다. 산정은 신이 하강하는 신성한 공간인 것이다. 이 산정, 峰上을 대지의 중심으로서 하늘로 오를 수 있는 신성한 장소, 즉 ‘세계의 중심’으로서 숭배하는 신앙현상은 종교사의 보편적 형태이다.¹⁴⁾ 따라서 산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성한 공간이면서 장소로 인식되었으며 이런 사고방식이 산과 산신을 숭배하는 하나의 신앙형태로 나타났다. 산에 대한 신앙은 산신에게 제사하는 산신제가 되었고 국가 제의로 발전하면서 산을 섬기는 것은 나라를 지키면서 왕권을 보호하는 것과 천재지변을 물리치는 목적으로도 활용되었다. 또한 고대국가 초기의 왕들 가운데 사후에 산신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토함산 산신으로 모셔진 신라의 탈해왕과 가락국의 시조모로 알려진 정현모주가 그들이다. 정현모주는 신라 왕조의 시조인 여산신이며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를 낳은 후 선도산의 산신이 되었다. 이 선도산신이 신라 초기엔 가장 중요한 산신이었고 가장 융숭하게 제사를 모셨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후 선도성모는 불교를 포교하는 여산신으로 변했다. 그런가 하면 탈해왕은

근거하여 신라인의 산신신앙과 불교습합에 대하여 서술코자 한다.

12)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濊條, 其俗重山川 祠虎以爲神.

13) 『三國遺事』古朝鮮(王儉朝鮮), 昔有桓因(謂帝釋也)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即太伯山妙香山)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中略....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孕生子 號曰壇君王儉 以唐高即位五十年庚寅(唐高即位元年戊辰 則五十年丁巳 非庚寅也 疑其未實) 都平壤城(今西京) 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又名弓(一作方)忽山 又今彌達 御國一千五百年 周虎王即位己卯 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 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14) 금장태, 「한국고대의 신앙과 제의」, 『동덕여대논총』8, 동덕여대, 1978, p. 8.

남산신이다.

산신은 시대와 종교에 따라서 그 성도 다르게 나타난다. 고대의 산신들은 주로 여성이었다. 仙挑山聖母, 鷓述山神母, 智異山威肅聖母, 伽倻山の 正見母主, 靈鷲山の 辯才天女, 김유신에게 顯現한 奈林, 骨火, 穴禮 등의 산신은 모두 여성신이였다. 그러나 유교가 들어오면서 유교적 합리주의와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 산신은 남성적 존재로 변화하고, 산신숭배도 산악숭배와 왕조보존을 위한 호국신앙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¹⁵⁾ 또한 신라사회에서는 해당 산에 대한 국가적 제사를 지냈는데 이 제사 역시 이들 산신에 대한 제사였다. 『삼국유사』 선도성모수희불사조의 기록에도 “벽에 五十三佛과 六類聖衆, 諸天神 및 五岳神君을 그림으로 그리고 봄, 가을 에 선남선녀를 모아 점찰법회를 베풀어 이를 향기로 삼으라”고 하였다. 이 내용으로 보더라도 불교의 신앙과 신라의 토착신앙이 타협하고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 터전을 잡고 살아 온 한민족에게는 토착신앙으로서의 산신숭배 신앙 자체가 곧 역사이며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지대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산과 밀접한 경제적 요인도 산악숭배 신앙을 발달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에서 자연신령 가운데 가장 일반화되어 있고 가장 오래된 전통이 산신이다. 산신은 여러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산에 대한 일반적인 종교현상이다. 산을 두려움과 외경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민족은 거의 없으며 각 민족마다 산과 연관된 신들과 정령들에 대한 신앙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원시적인 모습은 산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광대한 크기나, 우뚝 솟은 형태, 세상과 떨어져 있으면서 구름에 잠긴 신비스러운 분위기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¹⁶⁾ 또 허남춘은 “천신과 지신에 대한 신앙은, 하늘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고 땅을 다스리며 풍요를 가져오는 조상신 신앙으로 수렴된다. 그 조상신이 하늘로부터 지상의 산악에 하강하는 과정이 중시되기에 특히 산악신앙이 한·일 양국에서 중시되었다. 그중에서 철기문명을 지닌 신라 도래인 집단의 일본 이주와 함께 옮겨온 것으로 보인다.”¹⁷⁾고 하여 산악신앙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중요한 토착신앙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대사회의 토착신앙의 하나인 산신신앙에 대한 정치, 사회, 문화적인 기능들도 고대사회의 발전과 그 축을 같이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신라는 산신에 대한 문헌자료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도 신라를

15) 손정희, 「산신신앙연구」, 『한국민족문화』16,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0, p. 2.

16) 이은봉, 『한국고대종교사상』, 집문당, 1999, p. 102.

17) 허남춘, 「한일고대신화의 산악숭배와 삼산신앙」, 『일본근대학연구』 제23집, 한국일본근대학회, 2009, p. 120.

중심으로 토착신앙으로서의 산신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질 것이다.

신라사회에서의 산신에 대한 기록은 『新唐書』東夷傳 新羅條에 나타나고 있는데 ‘산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¹⁸⁾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산신에 대한 제사 기록이 11세기 중엽에 쓰여진 『新唐書』에 나타났다고 하여 산신신앙이 이 시기에 성립되었다기 보다는 신라 말기에 산신신앙이 민간에서 매우 성행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도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사가 여러 번 나타나고 있다.

먼저 ‘평원왕 5년 여름에 크게 가뭄이 들어 왕은 평소에 음식을 줄이고 산천에 기도하였다.’¹⁹⁾고 하였으며 ‘고구려는 항상 3월 3일에 낙랑의 언덕에 모여 돼지와 사슴을 사냥하여 하늘과 산천에 제사하였다.’²⁰⁾고 기록되어 있다. 또 신라에 대한 기록을 보면 ‘30년 가을, 7월에 메뚜기 떼가 곡식에 피해를 주자, 왕이 산천에 두루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올렸는데 메뚜기 떼가 없어지고 풍년이 들었다.’²¹⁾고 하였고 ‘5년 겨울 10월에는 왕이 북방으로 순행하여 친히 태백산에 제사 지냈다.’²²⁾는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정치적으로는 왕권을 중심으로 통치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부족중심 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산신의 존재가 필요했으며 이것이 하나의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하나의 신앙행위의 형태로 제의가 행해졌다. 이와 같은 왕조의 산악숭배는 국가수호·왕조보존 및 천재지변의 극복 등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처럼 산신신앙은 산 그 자체를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산악신앙과 함께 수호신으로서 생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존재였다. 즉 농사와 출산, 질병까지 좌우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산천에 대한 자연관은 건국신화에서부터 고대 토착신앙을 거치면서 구체화된 것으로 보여 진다. 이후 삼국시대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각각 산천에 제사하는 제도를 국법으로 정하기도 했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체제를 갖춘 곳은 신라였다. 이를 증명하듯 신라인들은 오악명산에 사찰을 세워 산신신앙과 불교의 융합을 구체화하였다. 오악의 동악인 토함산에는 불국사와 석굴암을, 북악인 태백산에는 부석사와 부암사, 중악의 팔공

18) 『新唐書』東夷傳 新羅條, '好祭山神.'

19) 『삼국사기』권19 고구려본기 제7 평원왕, ‘五年 夏 大旱 王減常膳 祈禱山川’

20) 『삼국사기』권32 잡지 제1 제사, 高句麗, ‘常以三月三日 會獵<樂浪>之丘 獲猪鹿 祭天及山川’

21) 『삼국사기』권1 신라본기 제1 과사이사금, ‘三十年 秋七月 蝗害穀 王遍祭山川 以祈禳之 蝗滅, 有年’

22) 『삼국사기』권1 신라본기 제1 일성이사금, ‘冬十月 北巡 親祀 太白山’

산에는 동화사와 지장사, 남악 지리산에는 화엄사를, 서악 계룡산에는 갑사를 창건하였던 것이 그 예이다.

물론 산신신앙은 불교나 기독교처럼 하나의 종교적 형태로는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지만 민간신앙으로 우리민족의 기층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오랜 세월의 변화와 역사 속에서도 없어지거나 쇠잔하지 아니하고 민족의 심층속에 뿌리깊게 자리 잡아 신화, 전설, 민담 등의 문학속에서는 무형적 존재로 살아있고, 산신당, 성황당, 산신제 등의 의례속에서는 유형적 존재로 살아 있다.²³⁾ 한편 이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불교적 지신신앙으로 간주할 만한 지장신앙의 등장이다. 이 신앙의 주요 경전으로는 『佛說大乘大集地藏十輪經』과 『佛說地藏菩薩本願經』, 『占察善惡業報經』을 꼽으며 이 셋을 통칭 『地藏菩薩三部經』이라 하지만 신라에서 성행한 흔적이 뚜렷하고 선구적인 불경으로는 『占察善惡業報經』이다. 그런데 『占察經』에서의 지장은 사후 세계의 주체자로 그려져 있지 않고 단지 현존 인간들이 받는 과보를 전생에서의 업으로 보아 점을 쳐서 파악케 하고 해당 악업을 씻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신라에서 지장신앙에 의해 산신신앙이 포용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양자 융합의 기초 여건만은 일단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을 듯싶다.²⁴⁾

불교에서 산 또는 산신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 표현은 설산, 즉 히말라야와 須彌山이다. 여기서 수미산은 경전에 등장하는 산으로서의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미산은 불교의 우주론인 도리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곳의 정상에는 33천의 존재로 인하여 파생된 육계 제2천인 도리천이 있으며 이곳에는 리그베다의 최대신인 제석천이 살고 있다. 이러한 수미산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는 상상할 수 없는 높고, 많음을 표현할 때 주로 비유하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영취산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 이곳은 부처님이 『법화경』과 『무량수경』을 설한 곳이기 때문에 불교경전에 나타나는 산신사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²⁵⁾ 한반도 고대사회에서 성립된 토착신앙으로서의 산신신앙은 산악지형의 특성상 고대인들의 삶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국가수호의 이념에서부터 지역민을 위한 공동체 조직의 중심역할은 물론, 농사와 다산 등 경제적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를 통해 국민을 결속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맡았던 중심신앙이라고 하겠다. 어떠한 사상이나 신앙은 시대와 종교의 흥망과 그

23) 손정희, 앞의 글, 2000, p. 2.

24) 김재경, 『신라토착신앙과 불교의 융합사상사 연구』, 민족사, 2007, p. 76.

25) 김덕원, 「불교경전의 사상이 한국 전통신앙에 끼친 영향」, 『한국고대사 탐구』12,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2, pp. 242~245. 참조.

흐름을 함께하고 있음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민족의 산신신앙은 시대와 사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이어져 오고 있다. 종교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는 자연신으로서 신앙의 중심 역할을 했으며, 불교 전래 이후에는 서로 융화하고 보완하면서 사찰안의 산신각을 중심으로 민간신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Ⅲ. 산신신앙의 불교습합

1. 갈등, 그리고 대립

한국인의 종교관은 ‘순수전통주의’와 ‘관용적 포용주의’라는 두 가지 태도를 동시에 포함한다. 첫째, 순수 전통주의는 특정한 종교의 전통적 메시지를 원형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로서, 특히 고정종교를 받아들일 때 잘 드러난다. 둘째, 관용적 포용주의는 외부의 종교와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이다.²⁶⁾ 이런 종교관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한반도에서 볼 수 있는 민간신앙으로서의 산신신앙과 불교의 습합현상이라고 하겠다.

습합이란 두 문화가 절충하여 서로 변모하고 때로는 제3의 문화²⁷⁾를 만들어가는 문화변용을 말하는데 습합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禮記』권3이다. 즉 ‘천자가 악사에게 명하여 예악을 습합하게 하였다.(內命樂師習合禮惡)’고 하여 습합이 조절²⁸⁾을 의미하며 이런 습합현상은 종교사의 발전과정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으로 종교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반도에서 토착신앙으로서의 산신신앙은 긍정적인 형태로 불교에 습합되었다고 보여 진다.

불교 교리는 타 종교에 비해 지극히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다원주의적 포용성²⁹⁾을 지니고 있고 그러한 특성이 불교와 관련이 없던 토착신앙인 산신을 포용하게

26) 윤이흠 외, 『세계의 종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7, p. 258.

27) 최래욱, 「한국민속과 기독교의 습합 양상」, 『비교민속학』제24집, 비교민속학회, 2003, p. 118.

28) 이광래, 『일본사상사연구-습합, 반습합, 역습합의 일본사상』, 경인문화사, 2005, p. 5.

29) 김용덕, 「불교민속의 형성과 전승과제」, 『불교평론』41호, 2009년 겨울 제11권 제4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p. 158.

되었다고 하겠다.

한반도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들어 온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이다. 신라는 불교 수용에 있어 고구려·백제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고구려와 백제는 불교를 받아들인데 있어서 큰 저항없이 왕의 권위에 의해 순조롭게 수용되었지만, 신라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 내부적 갈등을 겪어야 했다. 그것은 신라에 불교가 전래되고 난 이후, 수용과 공인의 과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신라의 불교 전파는 눌지왕 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아도’라는 승려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인 법흥왕 때 이차돈의 순교가 공식적인 수용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흥륜사의 공사 재개를 통해 불교가 신라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처럼 신라에서 불교의 공인이 늦어지게 된 이유는 신라사회에 뿌리내린 토착신앙이 매우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토착신앙과 불교와의 갈등 양상은 『삼국사기』법흥왕 15년조의 기록에서도 볼 수 있다.

여러 신하들이 불교를 믿지 않고 반대가 많았으므로 왕도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이때 가까운 신하 이차돈(혹은 처도라고도 한다)이 왕에게 여쭙어 말하기를 “소신의 목을 베어 여러 사람들의 분분한 견해를 하나로 모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왕이 답하기를 “본래 도를 흥하게 하려는 것인데,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이차돈은 “만약 불도가 시행된다면 소신이 죽더라도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자 왕은 여러 신하들을 불러 의견을 물었다. 그들은 모두 “요즈음 중의 무리를 보면, 머리를 깎고 이상한 복장을 하였으며, 말하는 것이 기괴하니, 이는 영원히 진실한 도가 아닙니다. 이제 만약 그들을 방치한다면 후회할 일이 생길까 염려되오니, 저희들은 비록 중죄를 당할지라도 감히 명령을 받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³⁰⁾

그런가 하면 『삼국유사』권3 흥법 제3 원종흥법 염축멸신조에서도 법흥왕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예전에 법흥대왕이 자극전에서 왕위에 올랐을 때 동쪽 지역을 살펴보고 말했다. "예전에 한나라 명제가 꿈에 감응되어 불법이 동쪽으로 흘러들어왔다. 내가

30) 『三國史記』卷4, 新羅本記 4 法興王 15年條. 群臣不信 喋喋騰口舌 王難之 近臣異次頓(或云<處道> 奏曰 請斬小臣 以定衆議. 王曰 本欲興道, 而殺不古辜 非也 答曰 若道之得行 臣雖死 無憾 王於是召群臣問之 僉曰 今見僧徒 童頭異服 議論奇詭 而非常道 今若縱之 恐有後悔 臣等雖卽重罪 不敢奉詔.

왕위에 오른 뒤로 백성들을 위해 복을 닦고 죄를 없앨 곳을 마련하려 한다."고 하자 조신들(鄉傳에서는 工目謁恭等이라 했다.)은 왕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나라를 다스리는 대의만을 지켜 절을 세우겠다는 신령스러운 생각에 따르지 않자 대왕은 탄식했다. "나는 덕이 없는 사람으로 왕업을 이어받아 위로는 음양의 조화가 모자라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즐거하는 일이 없어서 정사를 닦는 여가로 불교에 마음을 두었으니 그 누가 나의 일을 함께 할 것인가.(『三國遺事』卷3 興法 第3 原宗興法 馱羈滅身條)"

이처럼 법흥왕은 불교에 대한 애착으로 공인을 하려 하였으나, 여러 신하들과 지방 호족들이 불교 공인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적인 신라의 조신들은 상도가 아닌 종교를 본래부터 수궁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몰래 포교하는 승려들의 모습은 童頭·異服으로서 그 외형이 다르고 또한 그 사상과 교설이 전통적인 믿음과 상충되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³¹⁾ 이런 사례들로 미루어 신라에서 불교의 수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삼국유사』원광서학조에는 신라의 산신신앙과 불교가 대립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법사의 속성은 설씨로 왕경 사람이다. 처음에 스님이 되어 불법을 배웠는데 나이 30세에 한가히 지내면서도 도를 닦으려고 생각하여 삼기산에 홀로 살기를 4년이다. 이때 스님 한분이 와서 멀지 않은 곳에 따로 절을 짓고 2년 동안 살았다. 그는 사람됨이 강하고 용맹스러우며 주술을 배우기도 좋아했다. 법사가 밤에 홀로 앉아서 불경을 외는데 갑자기 신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했다. "그대의 수행은 참으로 장하하오. 대체로 수행하는 자가 아무리 많아도 법대로 하는 이는 드문데 지금 이웃에 있는 중을 보니 주술을 빨리 익히려 하지만 얻는 것이 없을 것이며, 시끄러운 소리가 오히려 남의 정념을 괴롭히기만 합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내가 다니는 길을 방해하여 지나다닐 때마다 미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법사는 나를 위해 그 사람에게 말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가도록 하시오. 만일 오랫동안 거기에 머무른다면 내가 갑자기 죄를 저지르지도 모릅니다." 이튿날 법사가 가서 말했다. "내가 어젯밤 신의 말을 들으니 스님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이요." 그러나 그 스님은 대답하기를 "수행이 지극한 사람도 마귀의 현혹을 받습니까. 법사는 어찌 호귀의 말에 근심하시오."하였다. 그날 밤에 신이 또 와서 말했다. "전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스님이 무어라 대답하였습니까." 법사는 신이 노

31) 목정배, 『삼국시대의 불교』, 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pp. 124~125.

여워할까 두려워서 대답했다. "아직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한다면 어찌 감히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신이 답하기를 "내가 이미 다 들었는데 법사는 어찌해서 말을 보태서 하시오. 그대는 잠자코 내가 하는 것만 보시오."라며 말을 마치고 가더니 밤중에 벼락과 같은 소리가 났다. 이튿날 가서 보니 산이 무너져서 스님이 있던 절을 묻어 버렸다. 신이 또 와서 말한다. "법사가 보기에 어떠하오." 법사가 대답했다. "보고서 몹시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신이 또 말하기를 "내 나이가 거의 3,000세가 되고 신술도 가장 훌륭하니 이런 일이야 조그만 일인데 무슨 놀랄 것이 있겠소. 나는 장래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온 천하의 일도 통달하지 못한 것이 없소.(『三國遺事』권4, 義解 5 圓光西學條)

위 기록의 내용을 정리하면 '원광법사가 홀로 삼기산에 살고 있었는데 4년 후 근처에 한 스님이 절을 짓고 살게 되었다. 그러자 산신이 법사에게 나타나 이웃의 스님에게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였고, 법사가 그 스님에게 산신의 말을 전하였으나 거절하였다. 산신은 이 말을 전해 듣고 노하여 산을 무너뜨려 스님의 절을 묻어 버렸으며 그 산신은 나이가 3천살이고 신술 또한 뛰어나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기사는 신라의 토착 산신신앙과 불교와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면서 신라 초기불교가 토착신앙에 대응하는 갈등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문헌상에서 볼 수 있는 산신신앙과 불교의 마찰 기록은 위에서 살펴 본 정도로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은 충돌 또한 심각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불교의 교리가 신라의 전통적 사유체계 내지 종교적 관념에서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이질적인 것이었기에 토착신앙과의 마찰은 불가피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교가 새로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토착신앙과의 융합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토착신앙의 입장에서도 외래적인 것과의 융합은 자기 구조의 실현을 위한 것이며 본래적인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³²⁾

그러나 불교세력이 점차 토착신앙 세력보다 우월적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해, 이를 巫·佛 교대라고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불교가 국가의 지도이념이 되어 정치적으로 토착신앙이 갖고 있던 위치를 결국 불교가 차지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통치이념으로서의 변화일 뿐 사상적으로는 두 개의 신앙이 마찰과 갈등을 겪으며 융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불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토착신앙적 요소는 다소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그대로 지속되어 오히려 불교에서 배워

32) 유동식, 「한국의 토착신앙과 민중의 불교수용형태」, 『연세논총』12, 연세대 대학원, 1975, p. 25.

은 것도 있고 반대로 불교가 토착신앙의 제 요소와 융화하여 한국불교로서 토착화되어 갔던 것이다.³³⁾

지금까지 불교전래에 따른 토착 산신신앙과의 갈등과 충돌에 대해 살펴보았다.³⁴⁾ 문헌 자료에서 살펴 본 갈등과 충돌 양상은 타 종교의 그것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런 약간의 신앙적 갈등 과정을 거쳐 불교는 산신신앙을 불교안으로 포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관습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은 인도 아시아 대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불교가 급속하게 전파되는 것에 일조하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³⁵⁾

2. 습합, 그리고 상생

현재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찰들은 산 속에 자리하고 있다. 산지 사찰들이 건립되기 시작한 것은 불교 수용 초기부터이며 왕경내 평지사찰과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산지 사찰들은 고구려는 5세기 전후, 신라는 5세기 중반, 백제는 6세기 초반 경부터 초기적인 형태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³⁶⁾ 이러한 산지 사찰이 형성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불교와 기존의 산신신앙과의 융합이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리라 보인다.³⁷⁾ 그런가 하면 고대인의 산을 중요시하는 습속으로 인해 산신신앙이 발달하였지만 불교 역시 산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불교라는 외래 종교가 한국 고대사회에 정착하게 되는 아주 적당한 여건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³⁸⁾

전국 어떤 사찰에 가더라도 불교 본연의 불사를 드리는 본당 이외에 토속신을 모신 명부전, 산신각, 칠성각 등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불교가 인도, 중국, 한국에

33) 최광식, 『한국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p. 260.

34) 본 장의 목적은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토착신앙인 산신신앙을 습합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전래된 불교의 교리와 시대적 상황, 그리고 산신의 性 논의라든가 靈媒者로서의 동물, 산신관련 설화 등은 논외로 하였다.

35) 신상환, 『용수의 사유』, 도서출판b, 2011, p. 35.

36) 정인중, 「삼국 및 통일신라 산지사찰의 형성과 변천과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 21.

37) 정인중, 위의 글, 2001, p. 24. 산지 사찰의 조성 원인에는 본 연구의 주제인 산신신앙과 불교의 융합외에도 불교의 전파와 수용 경로, 영토확장과 군사적 목적, 승려의 수행과 포교를 위한 목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38) 한국불교연구원, 『화엄사』, 일지사, 1984, pp. 16~17.

있어서 각국의 토착신앙과 융화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신을 모신 산신각은 우리나라 토착신앙과 불교가 융화된 양상을 나타내 주고 있는 좋은 예이다. 또한 산문 근처나 사찰 입구에서 장승이나 돌무더기의 존재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신각이나 사찰 입구의 장승은 한국사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두 불교 전입 이전의 토착신앙과의 융화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융화현상은 가람의 배치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찰연기설화, 연등회, 팔관회, 탕화 등이 그것이다.³⁹⁾

산신신앙과 불교의 융합에 대한 기록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삼국유사』 원광서학조의 내용이다.

이제 생각하니 법사가 오직 이곳에만 있으면 비록 자기 몸을 이롭게 하는 행동은 있을지 모르나 남을 이롭게 하는 공로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높은 이름을 드날리지 않는다면 미래에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 어찌 불법을 중국에서 취하여 이 나라의 모든 혼미한 무리를 지도하지 않으시오. 법사가 대답했다. 중국에 가서 도를 배우는 것은 본래 나의 소원이지만 바다와 육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가지 못할 뿐입니다. 이에 신은 중국 가는 데 필요한 일을 자세히 일러 주었다. 법사는 그 말에 따라 중국으로 갔으며, 11년을 머물면서 삼장에 널리 통달하고 유교의 학문까지도 겸해서 배웠다. 진평왕 22년 경신(三國史에는 다음해인 辛酉年에 왔다고 했다)에 법사는 중국에 왔던 조빙사를 따라서 본국에 돌아왔다. 법사는 신에게 감사를 드리고자 하여 전에 살던 삼기산의 절에 갔다. 밤중에 신이 역시 와서 법사의 이름을 부르고 말했다. 바다와 육지의 먼 길을 어떻게 왕복하였습니까? 신의 큰 은혜를 입어 편안히 다녀왔습니다. 나 또한 그대에게 계를 드리겠습니다. 말하고는 이에 生生相濟의 약속을 맺었다.(『三國遺事』卷4, 義解 5 圓光西學條)

이 기록에서 보면 불교가 외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삼기산신과 원광이 상생의 약속을 맺으면서 서로 융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기산신에게는 이타적인 이념이 있었으며, 또한 원광이 귀국하여 불교의 대중교화에 힘을 쏟을 수 있었던 것도 삼기산신의 이러한 이타적인 이념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삼기산신과 원광, 산신신앙과 불교가 서로 상생의 약속을 맺고 있는 것이다.⁴⁰⁾ 이처럼 산신신앙과 불교가 융합하면서 산신들의 거처인 전국의 유명한 산마다 보살들의 명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39) 최광식, 앞의 책, 2007, p. 261.

40) 강영경, 「한국 고대 산신신앙에 나타난 이상인간형」, 『종교와 문화』, 2002, p. 199.

형제 두 사람은 부처님께 예배하고 염불하며 행실을 닦으면서 동·서·남·북·중앙의 다섯 臺에 나가서 공손하게 예배했다. 청색방인 동대의 만월모양의 산에는 관음보살진신 1만이 항상 있고, 남대의 기린산에는 8대보살을 수위로 한 1만 지장보살이 상주하신다. 백색방인 서대 장령산에는 무량수여래를 수위로 하여 1만 대세지보살이 항상 거주하고, 흑색방인 북대의 상왕산에는 석가여래를 수위로 한 5백 대아라한이 항상 계신다. 황색방인 중대 풍로산은 또한 이름을 지로산이라고 하여 비로자나를 수위로 한 1만 문수보살이 항상 있고, 또 진여원 땅에는 문수보살이 날마다 이른 새벽에 36가지 모양(三十六形 臺山五萬眞身傳에 나온다)으로 변화하여 나타났다. 두 태자는 함께 예배하고, 날마다 이른 아침이면 골짜기의 물을 길어다가 차를 달여서 1만 진신의 문수보살에 공양했다.

(『三國遺事』卷3, 塔像 4 溟州 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

위 『삼국유사』의 기사에 따르면 오대산은 동·서·남·북·중대의 다섯 정상을 불보살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이것으로 국토의 만다라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곧 『화엄경』의 영향으로 보이며 경전상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변상과도 연결되어 보인다. 오대산은 산악승배사상과 불교를 연결하여 자주 등장하는데 화엄사상과 문수신앙의 기도처로 자장율사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⁴¹⁾ 또한 산신의 주처인 산봉우리 마다 불법을 수호하는 보살들의 명호가 붙여지면서 신라인들은 자연스럽게 불교와 산신신앙을 동일시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자장율사가 말년에 태백산에서 거사의 몸으로 나타났던 문수보살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으며 중국에서 수학할 때 문수보살을 친견했던 장소가 오대산이었고 신라 화엄사상의 중심지가 곧 오대산이었다. 따라서 자장율사의 죽음을 통해 문수신앙을 태백산까지 보급하고자 했던 그의 의지를 이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다.⁴²⁾

41) 『三國遺事』,卷4, 義解5 慈藏定律條, 暮年謝辭京輦 於江陵郡 (今冥 [校勘州也] 創水多寺居焉 復夢異僧 狀北臺所見 來告曰 明日見汝於大松汀 驚悸而起早行至松汀 果感文殊來格 諮詢法要 乃曰 重期於太伯葛蟠地 遂隱不現 (松汀至今不生荊刺 亦不棲鷹鷂之類云) 藏 往太伯山尋之 見巨蟒蟠結樹下 謂侍者曰 此所謂葛蟠地 乃創石南院 (今淨岩寺) 以候聖降 粵有老居士 方袍襤褸 荷葛簞 盛死狗兒來 謂侍者曰 欲見慈藏來 爾門者曰 自奉山箒 未見忤犯吾師諱者 汝何人斯 爾狂言乎 居士曰 但告汝 師 遂入告 藏不之覺曰 殆狂者耶 門人出話 逐之居士曰 歸歟 歸歟 有我相者 焉得見我 乃倒簞拂之 狗變爲師子寶座 陞坐放光而去 藏聞之 方具威儀 尋光而趨登南嶺 已杳然不及 遂殞身而卒 茶毗安骨於石穴中.

42) 『三國遺事』,卷3, 塔像4 臺山五萬眞身條, 初法師欲見中國五臺山文殊眞身 以善德王代 貞

그러나 고대로부터 한국에 존재하고 있었던 종교는 불교가 아니라 토착신앙이었다. 불교가 한국적 정서에 동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토착신앙들과의 융합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두 신앙의 형태가 융합된 실질적인 문화현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⁴³⁾ 따라서 산신각 유형의 단초는 신라시대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기록은 『삼국유사』 선도성모수회불사조에서 일부 분 확인이 가능하다.

진평왕 때 지혜라는 비구니가 있어 어진 행실이 많았다. 안흥사에 살았는데 새로 불전을 수리하려 했지만 힘이 모자랐다. 어느 날 꿈에 모양이 아름답고 구슬로 머리를 장식한 한 선녀가 와서 그를 위로해 말했다. "나는 바로 선도산 신모인데 네가 불전을 수리하려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여 금 10근을 주어 돕고자 한다. 내가 있는 자리 밑에서 금을 꺼내서 主尊三像을 장식하고 벽 위에는 五三佛과 六類聖衆 및 모든 천신과 오악의 신군을, 그리고 해마다 봄과 가을의 10일에 남녀 신도들을 많이 모아 널리 모든 중생을 위해서 점찰법회를 베푸는 것으로써 일정한 규정을 삼도록 하라.(本朝 屈弗池의 용이 황제의 꿈에 나타나 영취산에 樂師道場을 영구히 열어 바닷길이 편안할 것을 청한 일이 있는데 그 일도 역시 이와 같다).

지혜가 놀라 꿈에서 깨어 무리들을 데리고 신사 자리 밑에 가서, 황금 160냥을 파내어 불전 수리하는 일을 완성했으니, 이는 모두 신모가 시키는 대로 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적은 남아 있지만 법사는 폐지되었다. 신모는 본래 중국 제실의 딸이며, 이름은 사소였다. 일찍이 신선의 술법을 배워 해동에 와서 머물러 오랫동안 돌아가지 않았다. 이에 父皇이 소리개 밭에 매달아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다. "소리개가 머무는 곳에 집을 지으라." 사소는 편지를 보고 소리개를 놓아 보내니, 이 선도산으로 날아와서 멈추므로 그곳에 살면서 地仙이 되었고 산 이름은 서연산이라고 했다. 신모는 오랫동안 이 산에서 살면서 나라를

觀十年丙申(唐僧傳 云十二年 今從三國本史) 入唐 初至中國太和池邊石文殊處 虔祈七日 忽夢大聖授四句偈 覺而記憶 然皆梵語 罔然不解 明旦忽有一僧 將緋羅金點袈裟一領 佛鉢一具 佛頭骨一片 到于師邊 問何以無聊 師荅以夢所受四句偈 梵音不解 爲辭 僧譯之云 呵囉婆佐曩 是曰了知一切法 達嚩隸佉嘑 云自性無所有 曩伽吡伽曩 云如是解法性 達嚩盧舍那 云即見盧舍那 仍以所將袈裟等 付而囑云 此是奉師釋迦尊之道具也 汝善護持 又曰 汝奉國長方溟州界有五臺山 一萬文殊常住在彼 汝往見之 言已不現 遍尋靈迹 將欲東還 太和池龍現身請齋 供養七日 乃告云 昔之傳偈老僧 是真文殊也 亦有叮囑創寺立塔之事 具載別傳 師以貞觀十七年 來到此山 欲觀真身 三日晦陰 不果而還 復住元寧寺 乃見文殊云 至葛蟠處 今淨嶺寺是.

43) 유동식, 「불교사찰의 삼성각과 삼신신앙에 대하여」, 『한국문화인류학』6, 한국문화인류학회, 1973, p. 143.

다스리니 신령스럽고 이상한 일이 매우 많았다. 때문에 나라가 세워진 뒤로 항상 三祀의 하나로 삼았고, 그 차례도 여러 望의 위에 있었다.(『三國遺事』卷5, 感通 7 仙桃聖母隨喜佛事條)

이 기록에 따르면 안흥사에는 신상과 천신, 산신이 한 자리에 그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안흥사에서 불교, 천신신앙, 산신신앙, 귀신신앙이 서로 융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산신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산신이 주체가 되어 불교와 천신, 오악신군, 귀신을 모두 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교적 갈등은 그 사회의 이념적인 갈등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설화에서는 산신신앙과 불교가 잘 융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⁴⁾ 또한 신모 역시 중국 왕실의 딸로, 선도산의 신모가 되었으므로 여산신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불교와 토착신앙의 융합이 사찰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북악 부석사의 창건설화일 것이다. 사찰의 창건설화는 불교가 한국의 기존 신앙체계 위에 자리 잡으면서 겪은 문화적인 변용의 양상이 표현된 이야기라 할 수 있다.⁴⁵⁾ 그러므로 부석사 창건설화는 토착신앙과 불교가 대립을 거쳐 융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하겠다. 물론 오악에 건립된 대부분의 사찰들이 이러한 창건관련 설화가 전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산신신앙과 융화, 습합된 형태로 건립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신신앙은 사찰내에서 산신각을 중심으로 불교에 습합된 형식으로 나타난다.

통일신라 말기인 9세기 이후에 전국의 명산을 중심으로 사찰이 많이 건립되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지역이 고대 토착신앙의 신성지역이기도 했다. 이는 기존의 산신신앙과 불교의 융화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며 산신이 사찰내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찰내에서 산신각은 대웅전의 뒤편 왼쪽 위에 위치한다. 물론 공간이 부족하거나 지형상의 여건으로 인해 대웅전 뒤편 오른쪽 위에 자리 잡은 경우도 있으나 이런 배치 형태는 한국 사찰의 특이한 형태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산신각이 언제부터 사찰에 건립되어 불교신앙의 한 부분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민속학자들과 일부 불교학자들은 불교의 전래기에 사찰안에 산신당, 용왕당, 칠성각 등을 지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간신앙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며 이것은 일반인들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

44) 강영경, 앞의 글, 2002, p. 163.

45) 이준근, 「용신창사설화의 형성과 의미」, 『구비문학연구』3, 구비문학회, 1996, p. 300.

나 산신각, 독성각, 칠성각의 등장은 조선시대 후반이며, 1800년대 초기부터 이들 전각의 건립이 전국 사찰에 유행처럼 번져 1900년대 초기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⁴⁶⁾ 1827년 간행된 『作法龜鑑』에는 『山王經』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데, 산신을 불러오기 위한 산신청문의 경이라는 명칭으로 승격된 것을 보면 산신신앙이 불가 전반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산신신앙이 한반도에서 고대로부터 우리민족의 토속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불교전래 이후 불교와 공존의 길을 걸어 온 것은 사실이나 불교 사찰내에 전각으로 자리 잡은 것은 각종 기록으로 살펴볼 때 180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대부분의 사찰이 산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각 산의 본래 주인이었던 산신과 일정부분 신앙적 동거가 불가피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이 사찰안에 산신각이 수용되기 시작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겠다. 이런 전통은 오늘날에도 계속되면서 사찰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대부분 산신각 또는 삼성각을 건립하고 있다.⁴⁷⁾

물론 산신이 한국불교 수용 당시부터 사찰에 모셔졌다는 연구도 있다.⁴⁸⁾ 즉 삼국시대부터 한국불교에는 호국적인 성격이 있었으므로 산신, 칠성, 독각을 처음부터 사찰내에 모시고 기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고려불교가 도교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도교의 醮祭를 불교내에 수용하였으며⁴⁹⁾ 삼국시대 이래로 수용한 칠성과 산신에 대한 기도를 해오다가 고려시대에 와서 사찰내에 칠성각, 산신각 등을 병설하였다는 견해도 있다.⁵⁰⁾ 결국 토착신앙의 성지에 사찰을 건립하거나 사찰을 성지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한민족의 독특한 입지관이었다. 이에 따라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성지에 불교가 자리 잡으면서 토착신앙을 습합하여 불교로 대체하게 되었다.

인도 고유의 불교 신앙 역시 청량한 곳이 이상경으로 생각되었으며, 중국을 거

46) 김현준,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교보문고, 1991, pp. 314~315.

47) 어째서 17세기경에 산신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을까? 조선시대 말에, 지방의 거의 모든 사찰들은 더 이상 소작료만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시주를 받거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식이나 기도회를 주관해 벌어들이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일반신도들의 다양한 취향에 맞출 수 있는 의식들을 제공하게 되었다. 불교적인 의식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산신이나 칠성, 용왕 등 신중 탕화속의 신들을 개별화시키게 되었다.(David A. Mason, 신동욱 역, 『산신』, 한림출판사, 2003, p. 153.)

48) 유동식, 『민속종교와 한국문화』, 현대사상사, 1984, p. 117.

49) 高橋亨, 『李朝佛敎』, 寶文館, 1929, pp. 1058~1059.

50) 서경전, 「한국의 칠성신앙 연구」, 『원광대논문집』14, 원광대학교, 1980, p. 93.

처 불교가 전파됨에 따라 한국의 사찰도 청정도량으로서 영산을 名地로 한 것이다. 성지 신앙은 한국 특유의 산신신앙 및 산악 숭배사상과 맞물려 청정과 광명숭앙을 내용으로 하는 불교 신앙과 융합되었던 것이다. 산악에 대한 이러한 관념이 산신신앙을 쉽게 사찰에 끌어들이었던 것이다.⁵¹⁾

고대로부터 한반도에 존재하던 산악숭배사상은 산신신앙으로 발전되었고 불교와 융합하여 습합되면서 사찰내에 산신각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명산 성지를 신앙시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한국불교 내에서 산신의 지위는 가람의 수호신 역할의 기능과 함께 청정도량에서의 수행 생활의 평온을 기원하는 외호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일반 불교인들에게는 자손의 번창과 재물의 복, 사업성공을 바라는 기도의 대상으로 매우 큰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먼저 신라 오악의 성립과정을 정리하고 이 오악을 중심으로 행해진 신라인들의 산악숭배 신앙을 산신으로 대표되는 토착신앙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그리고 단군신화에서부터 시작된 산신관이 하나의 신앙형태로 발전되는 과정과 이 산신신앙이 불교와의 대립과 갈등기를 거쳐 불교안으로 습합되어 오늘날에는 불교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신라 오악은 초기에 경주 주변의 산을 중심으로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하고 통일의 대업을 완수한 후에 국토의 사방과 중앙에 있는 대표적인 산을 지정하여 오악으로 삼고 국가적 제사인 중사에 편입하였다. 오악이 중사에 해당된다고 하여 산악 자체에 제사하였다기보다 오악의 주신인 산신에 대한 제사였다. 따라서 당시 신라인들의 중심신앙은 산악숭배에서 비롯된 산신신앙이었다. 이후 불교가 전래되면서 불교수용을 추진하는 왕실과 반대하는 토호세력간의 갈등이 있었으나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는 공인되었고 산신신앙과 공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신라 말 중국에서 선종이 전래된 것을 계기로 산신신앙과 불교는 자연스럽게 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처럼 산신신앙은 샤머니즘, 도교, 불교, 유교의 전래와 수용속에서 각 종교사

51) 조용문, 「한국 전통 가람배치에서의 산신신앙의 공간영역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연구』6, 영남이공대 산업기술연구소, 1992, p. 80.

상과 마찰을 겪기 보다는 적절히 융화하여 때로는 그 위상이 높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면서 오늘날까지 민족의 심층속에 살아 있다.⁵²⁾ 산신의 주처인 산악은 오늘날 생태학적 논의와 환경보존의 가치를 재인식시키면서 환경적 기능의 중요성을 현대인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불교의 신앙적 가치체계안에서 공존·상생하고 있는 산신신앙은 이러한 흐름속에서 그 역할과 지위를 새롭게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산신신앙의 미래를 전망하는 논의 가운데 ‘녹색의식’ ‘생태공경’이라는 환경적 사고방식으로서의 전환⁵³⁾을 요구하는 주장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결국 이런 상생의 논의에서 보듯이 불교의 관용적 포괄주의를 바탕으로 한 습합이론을 통해 산신신앙은 변형 또는 상호보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후에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은 물론, 발전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논문투고일 : 7월 17일, 논문심사완료일 : 8월 2일, 논문게재확정일 : 8월 12일]

52) 손정희, 앞의 글, 2000, p. 2.

53) David A. Mason, 앞의 책, 2003, pp. 167~171 참조.

[참고문헌]

1. 기본사료

-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唐書』, 『新增東國輿地勝覽』, 『後漢書』

2. 단행본 및 저서

- 高橋亨, 『李朝佛敎』, 寶文館, 1929
- 김열규, 「脫解傳承考」, 『金載元紀念論叢』, 1969.
- 김재경, 『신라토착신앙과 불교의 융합사상사 연구』, 민족사, 2007.
- 김현준,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교보문고, 1991,
- 목정배, 『삼국시대의 불교』, 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 신상환, 『용수의 사유』, 도서출판b, 2011
- 유동식, 『민속종교와 한국문화』, 현대사상사, 1984.
- 윤이흠 외, 『세계의 종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7.
- 이광래, 『일본사상사연구-습합, 반습합, 역습합의 일본사상』, 경인문화사, 2005.
- 이은봉, 『한국고대종교사상』, 집문당, 1999.
- 정인중, 「삼국 및 통일신라 산지사찰의 형성과 변천과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최광식, 『한국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 최래옥, 「한국민속과 기독교의 습합 양상」, 『비교민속학』제24집, 비교민속학회, 2003.
- 한국불교연구원, 『화엄사』, 일지사, 1984.
- David A. Mason, 신동욱 역, 『산신』, 한림출판사, 2003.

3. 논문류

- 장영경, 「한국 고대 산신신앙에 나타난 이상인간형」, 『종교와 문화』, 2002.

- 금장태, 「한국고대의 신앙과 제의」, 『동덕여대논총』8, 동덕여대, 1978.
- 김덕원, 「불교경전의 사상이 한국 전통신앙에 끼친 영향」, 『한국고대사 탐구』12,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2.
- 김용덕, 「불교민속의 형성과 전승과제」, 『불교평론』41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9.
- 서경진, 「한국의 칠성신앙 연구」, 『원광대논문집』14, 원광대학교, 1980.
- 손정희, 「산신신앙연구」, 『한국민족문화』16,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0.
- 유동식, 「한국의 토착신앙과 민중의 불교수용형태」, 『연세논총』12, 연세대 대학원, 1975.
- _____, 「불교사찰의 삼성각과 삼신신앙에 대하여」, 『한국문화인류학』6, 한국문화인류학회, 1973.
- 이기백, 「신라오악의 성립과 그 의의」, 『진단학보』, 진단학회, 1972,
- 이준곤, 「용신창사설화의 형성과 의미」, 『구비문학연구』3, 구비문학회, 1996.
- 조용문, 「한국 전통 가람배치에서의 산신신앙의 공간영역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연구』6, 영남이공대 산업기술연구소, 1992.
- 허남춘, 「한일고대신화의 산악승배와 삼산신앙」, 『일본근대학연구』제23집, 한국일본근대학회, 2009.
- 홍순영, 「신라 삼산·오악에 대하여」, 『신라문화제 학술발표회논문집』4,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3.